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8호 【루게 제23140호】주제99(2010)년 7월 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창시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이달 리아, 타이에서 6월 22일과 27일에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장소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모임장소들에 전시되어있었다. 모임에는 이말리아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개선을 위한 기층로조, 폰트로베야노신공사, 《평화의 집》, 타이주체사상연구회, 타이조선전선대회, 타이 《청산리》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말리아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총비서 마우로 까치 디오는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진보적인인들은 영생하시는 김일성주석께서 인류사상사와 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국, 건국

있는 오늘 조선인민이 경제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며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는 비결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치시는 위대한 선군정치에 있다. 조선인민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자주와 진보,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심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명도가 있어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것이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송치트 폴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불패의 자주강국 여러 나라에서 행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하여 기네, 에티오피아, 로시야에서 강연회, 독보회, 영화감상회가 6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기네 2월 16일 애술연주소조, 국가박물관,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페킨 프린팅 프레스출판사, 로시야국제과학기술총보센터의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기네 2월 16일 애술연주소조에서 70성상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의 한생을 관망해온것은 자주였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신다. 파정에 두가지 진리를 찾으셨이다.

한나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있었다. 김정일주석께서는 이 진리에 기초하여 마침내 1930년 력사적인 카르페타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셨이다. 이때부터 조선혁명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밝힌 자주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김정일주석께서 한평생 고수해오신 자주의 기치는 오늘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선군령도 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는 조선의 현실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메드하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1부 항일혁명편 3편에서 《보급자진》을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회고록에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력사가 짐데서였다. 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었다. 그의 회고록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로 된다. 로시야 국제과학기술총보

센터 부사장 로진스키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보여 주는 우리 나라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영웅적혁명정신을 발휘하였다. 조선인민이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일수 있었던것은 그 진도에 위대한 김정일주석께서 계시였기 때문이다. 이대부터 조선혁명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밝힌 자주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었다. 김정일주석께서 한평생 고수해오신 자주의 기치는 오늘 불패의 자주강국으로 위용될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메드하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1부 항일혁명편 3편에서 《보급자진》을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회고록에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력사가 짐데서였다. 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었다. 그의 회고록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로 된다. 로시야 국제과학기술총보

다행임이 아니라 대고조건의 정제되어 넘어간다



릉성 번영 하는 사회주의 조국에 밝게 빛나는 어머니수령님의 대양의 모습

### 한결같이 펼쳐나 랑 강 도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철도수송문제를 푸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 어머니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령원을 꽃피워갈 각오안고 펼쳐나선 량강도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철도지향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 철길기간을 분담하고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철길교착품들과 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도에서는 철도지향사업의 열정을

### 혁신의 기상 차넘치는 발전소건설장

#### 취수구조물공사 힘있게 추진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함경남도려단 전투원들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함경남도려단 전투원들의 일꾼들과 동격대원들이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도의 마음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일념으로 발전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려단일꾼들과 동격대원들은 지난 6월말현재 희천 1호발전소 취수구조물공사를 위한 취수구와 취수탑착공사를 전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방대한 량의 흙과 암반을 처리해야 하는 이 공사가 계획보다 앞당겨 수행됨으로써 취수구와 취수탑의 콘크리트기, 도류벽형성공사, 취수탑수직갱의 수문설치 등 취수구조물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전방이 열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읍니다.》 취수구조물공사는 기술공정이 복잡하고 암반굴착량이 많은것으로 하여 희천 1호

#### 금야강 2호발전소건설장에서

금야강에 중소형발전소가 새로 건설된다. 금야강 2호발전소건설에 달려있는 일꾼들과 동격대원들은 착공의 첫 삽을 박은지 얼마 안되어 짧은 기간에 기본연체구간의 기초공과 콘크리트기기를 성파적으로 끝내고 지금 본격적인 연체공과 콘크리트기기에 진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소형발전소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금야강 2호발전소는 능력이 강하여 건설규모가 작고 따라서 품도 적게 드는 실리가 보장된 발전소이다. 근로책임일꾼들은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마칠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또래로써 발전소건설에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하는 일꾼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두고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이들의 결사판회의 정신에 의해 취수구조물공사는 계획일에 성파적으로 끝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기쁨

### 대고조전투쟁의 새 소식

#### 주체철생산성과 계속 확대

충진제강소 일꾼들과 로동자들

충진제강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주체철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안고 펼쳐나선 일꾼들은 6월에달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월천 많은 주체철을 생산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담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조를 높이 들고 담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강소에서는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제강소에서는 주체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를 실시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큰 힘을 쏟고있다. 제강소에서는 남이 갈수록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특약기자 전철주



당의 추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남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가는 곳마다에 사람들의 희한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우리 조국의 동계기술...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자랑찬 위훈

일이었다. 정년 현대적인 대규모의 토기종축장을 훌륭하게 건설하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일군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돌격대원들은 토기호동들의 지붕과 내부공사를...

이것이 어찌 그 혼자만의 성취인가. 이에도 불려한 몸으로 현장에서 나섰던 김형동무가 토기호동들의 살창들을...

이런 하나의 열망, 우리 당의 추산정책을 결사관철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녔기에 그들은 8개의 토기호동들과 토기호동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대화하였으며 토기호동들을 과학화할 수 있는...



토기호동들의 건설현장

강계연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열렬히 애용하고 자재의 힘으로 기술개건한 대용연료차를 리용하여...

백두산위인들의 승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기간 열렬히 애용한...

백두산위인들의 승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기간 열렬히 애용한...

기술개건에 지혜와 정력을 바쳐. 이뿐이 아니다. 부원 김영진동무는 고심어린 노력 끝에 참가자를 섞은...

이것이 어찌 그 혼자만의 성취인가. 이에도 불려한 몸으로 현장에서 나섰던 김형동무가 토기호동들의 살창들을...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토기호동들을 개건할 것은 개건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로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내 각 총리 최영립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총리 최영립동지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영웅 안동수동지의 전사 60돐에 즈음하여 그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황순희 조진혁명박물관 관장, 리광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대교조의 분위기에 맞는 참신한 방법으로

위대한 명도자 김영립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의 정치사업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대교조에서 승리의 열의는 첫째도 둘째도 대중의 정서적발동에 있다. 혁명적대교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

우리 당의 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될 때 위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대교조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학생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리의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대교조의 분위기에 맞는 참신한 방법으로

위대한 명도자 김영립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의 정치사업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대교조에서 승리의 열의는 첫째도 둘째도 대중의 정서적발동에 있다. 혁명적대교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

우리 당의 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될 때 위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대교조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학생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우리의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우리는 먹이거리를 전량생산케 더욱 높이며 수의방역시설을 충실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나갔다. 우리는 풀리는 집집을 대대적으로 기를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품종이 좋은 토끼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경제하는 장군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였다.

서정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김석주

맑은 하늘 푸른 산천  
내 나라 내 조국은  
그 미소 어려 이리도 밝고 밝은가  
그 뜻이 어려 이리도 푸르며 무성하는가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세월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수령님생각으로 흐른다  
변이 나면 변이 나 더 그리워지고  
경사나면 경사나 더 그리워지는

불보라를 뿌리며 주체철이 폭포된다  
아, 눈시를 후더미지는 수령님생각  
흰눈같은 비날론이 강들처럼 흐른다  
주체비로 이 땅의 기슭까지 넘친다  
아, 수령님 평생소원 꽃피워주신  
장군님생각

설레이며 물결치는 푸른 들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이 나라 농민들은  
수령님으로부터 농사일을 배우지 않  
았더니  
벌가득 가을가득  
자재로운 그 미소 어려오는구나  
수령님 한평생의 소원을 그  
음성 들려오는구나

사시절 농민들과 함께 벌에 사시며  
땅을 다루고  
물을 다루고  
자연의 번덕을 다스리며  
포기포기 곡식을 가꾸는  
백가지 천가지 농사일을 가르쳐주신  
수령님

많아도  
캐야 인민의 보화라 된다  
너 많은 땅을 캐내라!

그 어느 산에 가도 사랑의 자욱이 있다  
—물과 고기를 바꾸라!  
푸른 등판마다 흰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때  
갓가지 젓가공품을 실은 차들이  
유치원아이들을 찾아가고  
용해장에 들어선다

기아와에 비단옷에 흰쌀밥에 고기국!  
이것이 인민의 어머니  
우리 수령님의 소원이고 리상이었기에  
그 사랑에 받들려  
일어선 닭공장 돼지공장  
홍성이는 무릉도원 새집들이  
펼쳐지는 꽃바다 파도바다...

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

혁명을 두고  
건설을 두고  
생활을 두고 하신  
수령님 그 명언, 그 금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덜지도 보태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법으로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수령님뜻을 꽃피워가시는 장군님

우리는 수령님식으로 살며  
만복을 꽃피우는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  
심장에 새기고 소중히 받들어가며  
곡식을 가꾸고, 죄물을 풀고,  
비단을 짠다  
집을 짓고, 언제를 쌓고, 기념비  
들을 세운다

내 세상에 웨치고싶구나  
건국의 기슭에서부터 안고 오신  
어머니 한생이 어린 주체철  
이것이 우리 장군님 심장의 열로 부여한  
수령님의 철이다!

내 자랑하고싶구나  
장군님품에서 두번다시 꽃피던  
만복의 비날론  
이것이 전화의 그 나날부터 가꾸어  
주시며  
인민을 따듯이 안아주는 어머니사랑  
수령님의 비날론이다!

수령님 걸으시면 그 들길위에 새기시는  
장군님 자욱자욱을 따라  
대지를 적시며 자연물결이 뿔어간다  
멋쟁이벌들이 가없이 펼쳐진다  
수령님 한평생의 소원을 안고  
주체비로 는 나라 들에 흘러간다

수령님 한평생 배워주고 익혀주신  
주체농법!  
우리는 다른 법을 모른다  
오늘도 그 농사법대로 곡식을 가꾼다  
백과를 주렁지우며 무르익힌다

갈수록 더해지는 어머니사랑이여  
수령님 지어주신 추녀높은 궁전에서  
아이들은 고마운 그 사랑 노래부른다  
수령님 모시고 사는 행복  
은 나라 인민이 목매어 노래한다  
세상에 부럼없으라

나라이 천만가지 구석구석 다 보살  
피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수령님 그 사랑이  
장군님 이어가시는 자욱자욱  
인민의 만복으로 꽃피어나니  
아, 살면 살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홍성해지고 강해지는 나의 조국이며!

수령님식으로 사는것!  
수령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 하니  
남마다 덕이 차려지고  
남마다 복이 늘어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지켜가기에

전변하고 또 전변하는 내 나라  
장군님 가시는 초소와 일터  
대건설전진들  
어머니수령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우리의 위성이 만리장공을 날린다  
수령님 손길높이 가리키신 하늘길로  
산악같은 언덕들이 솟아오른다  
수령님 잡아주신 자리위에  
선경마을 선경거리들이 펼쳐진다  
수령님 놓아주신 추수들우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팔없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어머니수령님사랑

산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강이 변한다  
남마다 말마다 이 땅의 모든것이 전변  
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것이 있이라  
수령님식으로 사는것!

태양같이 웃으시며  
다정히 손잡고 이끄시며  
친근하게 가르쳐주시며  
수령님의 그 음성 들으며 우리는 산다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끝없는 세월 끝까지...

이 땅의 오곡은 어떻게 자라는가  
농사의 계절은 어떻게 흐르는가

이 나라 먼 북편 천길막장에도  
수령님사랑이 흐른다  
—땅속에 은근의 자원이 아무리

뜻도  
넘힐도  
사랑도

승리자의 선언

배심을 가지고 힘있게 (♩ = 114)

작사 김춘호  
작곡 조경준

1. 준엄한 록이오 전쟁의그날 판 가리 결전에 우리나섰다  
(후렴)  
조선의 본대로 원썬물치고 전승 의철이철 축포올렸다 침

락자 - 무리들아 합 - 부 로날뛰지말라

록이오되면 철이철 승리의 철이철었다

2. 전승을 안아온 그날의 기상 이 땅에 백배로 차고넘친다  
방패와 장검을 함께 버려든 우리의 경교엔 빈말이 없다

3. 행성을 뒤흔든 우리의 국력 평화를 위하여 우뢰치리라  
정의 총대는 불벼락 터쳐 승리를 승리로 이어가리라

(후렴) (후렴)

청년학생들의 회고음악회

《태양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회고음악회 《태양의 노래》가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한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사후지는 그리움이 장내에 차넘치는 속에 음악회는 합창, 발명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남성중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중창 《조선의 노래》와 너중창 《조국의 품》, 설화와 노래 《동지애의 노래》, 설화와 내성독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등의 종 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심을 안고 그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의 위대한 뜻을 지니시고 천만시원

을 맞받아 헤치시어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라원을 일떠세우시고 후손대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열화같은 흥모의 정을 담아 절절히 울려퍼지는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의 존엄도 팔없이 찬찬한 선군조선의 미래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변불후의 로고의 결정체임을 깊이 새겨 주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연고자들이 무대에 올린 기악과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선군청년전진위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청춘들의 자랑찬 모습을 합창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혼성 2중창과 방창 《당은

장군님의 품》, 설화와 노래 《민어달라 조국여》, 《태양의 위성이 되자》를 비롯한 총독들에 담아 훌륭한 향상을 하였다.

팔없이 울려퍼지는 노래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독창적인 선군경도로 조국과 후대들의 광명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어머니수령님의 넘칠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어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리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합창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가》로 끝난 음악회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경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해나갈 청년학생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판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장군님 높이 모시고 태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겠습니다》

너 맹원들의 회고무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한 너맹원들의 회고무대 《장군님 높이 모시고 태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겠습니다》가 6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절세위인께 대한 사후지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무대에 나선 너맹원들 녀성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상한 정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존엄과 영광으로 수놓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우리 녀성들을 참다운 혁명가,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존엄과 영광으로 수놓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영숙 농업성 부상은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들의 먹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멀고 험한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불변불후의 로고를 바치신분은 돌서고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깊은 감회속에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되새겨주며 출연자들이 부르는 노래 《포전길 걸을 때면》,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격정으로 젖어지게 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교수, 박사, 일군, 로력영웅으로 자라나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신영애, 주선철위원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선군시대 녀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합창 《우리는 맹세한다》로 끝난 회고무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경도따라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어머니수령님의 넘칠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갈 우리 녀성들의 혁명적열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6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맹일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렸다.

최수동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력포구역 직맹위원장 김광수, 김일성종합대학 초급직맹위원장 김려명, 평양기판차대 기관사 리동석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회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는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수령님에 대한 사후지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휩싸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었으며 직업동맹을 무어주시고 나아가길 길을 활히 밝혀주시



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키워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발전시키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령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수호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연승하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돌격전을 벌려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대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뒤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혁명대오의 일선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고수하고 계급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통개버리는것과 함께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며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각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드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가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권석봉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롱 세월을 견뎌오신 강활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드렸다.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 명칭 국립야구대미야 명속 무용단 귀국

엘레나 에르바코바 지베인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야구대미야명속무용단이 6일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민주주의생생합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에 망라된 대학생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근로자들이!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학습을 생활화, 실천화하며 일반직사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곳 조합원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과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안고 신의주공업대학 방직공학과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우고있다.

대학생들중 가정부인조합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수심명의 제대군인출신 조합원들이 병사시절의 그때처럼 선진과 학기술로 무장하는데서도 당당히 앞서나가고있다.

한 학생은 나란히 갔을 강의를 받는 18명의 부부당당히 강성대국대문에 들어설 그날을 그려보며

있으며 교편들과 참고서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학 교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대학졸업증을 안고 당당히 강성대국대문에 들어설 그날을 그려보며

심층의 세소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누구나 하루일을 마치고 《대학강의실》로 들어서는 모습은 참으로 이채로운 풍경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누구나 마음껏 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희곡이다.

지난해 1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 조합원들이 생산한 소비품들을 하나

하나 보아주시고 몸소 초콜릿까지 써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자재로운 모습을 봐오는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정속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 일군들이 소문없이 큰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이런 총부들이 우리 당이 바라는 일군들이라고 치하해주실 때 차차속동무들 비롯한 일군들은 북받치는 감격으로 뜨거웠을 삼키었다.

오늘 조합의 일군들과 조합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높은 평가를 우리의 부강번영에 더 잘 이바지하려는 크나큰 당부르, 믿음으로 간직하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속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권석봉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